

# 신라시대 무염낭혜국사 대승종풍 법맥계승

### 자성본불(自性本佛)은 곧 자신의 성품에서 찾아라

####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대종사



실천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대승불교(大乘佛敎)의 핵심사상인 성불도성을 스스로가 실천하고 지혜와 자비정신

선각종(禪覺宗)은 선(禪)과 교(敎)를 아우르는 선교겸수와 이판(理判), 사판(事判)에 걸림없는 이사무애(理事無碍)를 스스로

**교시**  
종단 화합 안정  
청정 종풍 확립  
포교 전법 도생

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의 존엄성을 불교인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뒤 돌아보고 자성본불(自性本佛)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한 나머지 무지막지한 "자연의 현상을 거스리는 행위" 또한 자재해야 할 것이다.

## “선각종” 성주산문 선각승풍 법맥 계승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 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로 하고, 신라의 무염(無染)국사께서 창수(創樹)하신 성주산문(聖主山門)의 선각심인(禪覺心印)을 흡수(欽承)하며, 근대의 취운(翠雲)선사의 제종포함사상(諸宗包轉思想)과 현대의 각성(覺性) 큰스님의 교학정신(敎學精神)을 계승하여 선교겸수(禪敎兼修)와 이사무애(理事無碍)를 제고(提高)하고,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성불도성을 실천하여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의 세존정신을 사회에 구현함으로써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를 법계에

유전케 하리라.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실천적 생활측면(生活側面)과 내면적 계발측면(啓發側面)을 총괄하는 새 천년 중흥불교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다. “문자에 의존함이 없이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는 선학(禪學)의 기본 입장과 경전의 강설과 호교학적인 주석서 작성에 전념하는 교학(敎學)의 틀을 함께 하는 실천적 수행(修行)과 증경교학의 영집기단(永劫基壇)이 되어 안으로는 법승판대의 향상과 번성을 기하며, 밖으로는 평화공존(和平共存)과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불기 2544(2000)년 3월 16일에 대한불교 선각종(禪覺宗)을 창종하였다.

### 한국불교 - 종단순례



##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움천면 개산리 391 움천사 (061)433-2233

### 선각종의 근거

선각종은 종조인 낭혜(서기 801~888년) 국사의 가르침에 따르고 청해 휴정(서산대사)의 유심 정토사상을 받들어 삼장(경·율·론)을 신행의 본존으로 수행 정진을 한다.

“자등명 법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으며, 보살행을 닦는 승속 동행을 원칙으로 하는 종단이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기타 경전 습득 및 범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무염 낭혜 국사는 신라시대의 태종 무열왕의 8대손으로 9세 때부터 일람침기의 신재를 보여 ‘해동신동’으로 불렸다. 13세 때 설악산 오색석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법성에게 수년을 사사하

고, 부석사 석정에게서 화엄경을 익혔다. 821년(헌덕왕 13년) 무염 낭혜는 21세에 당나라로 유학 길을 떠나고 그곳에서 남산 지상사에서 화엄을 불광사 여만에게서 법을 배우고 보철에게서 법인을 받았다.

고적과 고승들을 두루 방문하고 그 이름을 널리 떨쳐 ‘동방대보살’로 일컬어졌다. 845년(문성왕 7년) 귀국 후에는 움천 오합사(지금의 성주대사)로 일컬어졌다. 그 후에도 신라의 선종을 크게 융성시켰으며, 세수 88세 나이로 성주사에서 입적을 하셨다.

현재 충남 보령 성주사에는 낭혜화상백불보광탑비(국보8호)가 세워져 있다. 또한 남호 각성(1887~1978년)대종사를 개산조로 추대했으며, 현 초대종정으로는 영담 정암(1914~)큰스님이 사부대종의 추앙을 받고 있다.

### 禪覺宗의 修行

뿌린 씨앗은 언젠가 싹이 튼다. 다시 꽃을 피운다. 겨울 바람에 낙엽진 앙상한 나무 이제 봄을 만나 새잎이 돌아난다.

영산회상에서 뿌린 씨앗은 시방세계 도처에 싹이 트고 온천지에 자비의 꽃을 피운다.

대승(大乘)의 뿌리를 이땅에 확고히 심은 신라(新羅)의 무염국사(無染國師)께서 뿌린 씨앗은 실로 오랜 세월동안 잠자코 있었다. 대사(大師)가 이 땅에 들어온 많은 경론(經論)은 그간 우리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불교 발전에 지대한 몫을 해왔다.

실로 1300여년이나 대사의 유지는 이땅에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항상 더 활발하게 싹틔기를 기다려 왔다. 그간 우리의 사회나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의식상에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아무리 훌륭한 유행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고 외면당하기 마련이지만 부

처님의 가르침인 불법(佛法)만을 2500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항상 중생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감명을 주어왔다.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 해도 인간성심(人間心性)의 근저(根底)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간성이나 고대인의 인간성이나 근본적인 인간성은 그다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 불교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역시 현대인의 마음을 잘 밝혀주는 것이다.

한국불교 1600여년의 역사를 대표할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 신라(新羅)의 원효대사(元曉大師)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서산대사(西山大師)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당연히 무염낭혜(無染朗慧)대사를 손꼽을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 소, 승, 경론에 집착되어 정론을 입삼든 여러종파를 화해시켜 일미(一味)의 법해(法海)로 통합하게 하였는데 보조국사(普

### 대한불교 선각종 종지종풍

- 종명 : 대한불교선각종(大韓佛敎 禪覺宗)
- 교조 : 석가모니불
- 종조 : 통일신라 무염 낭혜 국사
- 개산조 : 남호 각성 대종사
- 종정 : 영담 정암 대종사
- 중흥조 : 봉운 정암 대선사
- 창종일 : 2000년 3월 16일
- 종지 :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무주무염국사께서 창수(創樹)하신 성주산문(聖主山門)의 선각승풍(禪覺僧風)을 선양(宣揚)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宗旨)로 한다.

### 대한불교 선각종 임원현황

#### 각 부처별 원장 스님 및 종무원장 스님

종 무 원 장	영담 정암 대종사
원 로 원 장	봉운 정암스님
종 회 의 장	법경스님
종 책 실 장	동명스님
사 정 원 장	자공스님
교 육 원 장	진원스님
선 교 원 장	혜명스님
문 화 원 장	벽해스님
국 제 교 원 장	도륜스님
복 지 원 장	진환스님
환 경 원 장	진덕스님
보 건 원 장	경봉스님
법 규 위 원 장	정각스님
법 계 고 시 위 원 장	다행스님
	해원스님
	원명스님

#### 종단 전국 교구원장

서울교구원장	진보스님
경기교구원장	헤인스님
강원교구원장	해국스님
인천교구원장	정각스님
충북교구원장	선보스님
충남교구원장	선관스님
전북교구원장	법일스님
광주교구원장	혜관스님
전남교구원장	진철스님
경주교구원장	진봉스님
포항교구원장	성법스님
부산교구원장	원정스님
제주교구원장	성우스님

### 정보화시대 불자양성 등 종단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장 봉운 정암 스님



현실적인 체험이며 자신의 내부에 깊숙이 숨어 있는 본성(本性), 진아(眞我)를 표현해 현재의식

으로 풀어 올려 눈 앞에 보일 때에 비로소 각자(覺者)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없는(無上) 존귀한 자아의 존재를 우리는 우선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믿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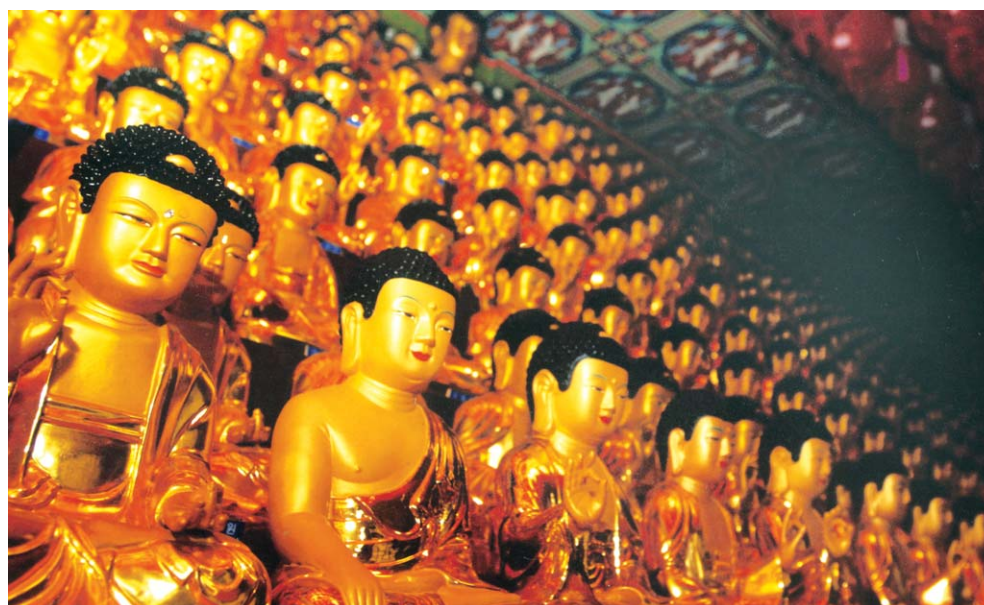
불(佛), 불타(佛陀)는 각자(覺者)며, 자기의 본성을 보고 깨침을 얻으면 붓다(佛)이다. 견성성불의 지각은 헛된 관념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야 비로소 자성본불(自性本佛)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3월 16일 창종한 대한불교 선각종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종단이지만 호국기원, 국태민안, 교정교화사업, 경전연구발간사업, 장묘사업 현대화 등 중생구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 추진 중에 있다.

△ 조·중·교생 장학사업, △ 종립학교 설립, 해외연수 교육 연1회 실시, △ 독거노인 요양원 설립, △ 교도소 수용자 교화사업, △ 승려전통의식 및 수련원 설립, △ 사이버 법당 운영과 영불선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님의 교리를 삶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생활불교로서 전법도생 대중교화의 전 종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자리가 타 정신을 구현코자 한다.



움천사 지장 대불



선각총림 움천사 천불전

## 선각종은 종조인 무염낭혜(서기 801~888)국사의 가르침에 따르고 청해 휴정(서산대사)의 유심 정토사상을 받들어 삼장(경·율·론)을 신행의 본존으로 수행정진

照國師)는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불교시어(佛敎是語)라 하고 불심(佛心)과 불어(佛語)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일원(一元)이라는 이치를 체득(體得)하고 종래의 치선(痴禪) 광혜(狂慧) 교가(敎家)들이 불교조교(佛敎敎敎)를 이원(二元)으로 망상하고 갖가지 장벽을 쌓아서 모순적대(矛盾敎對)하여 오는 고질적(姑姪) 악습(惡習)을 일봉(一柵)으로 타파하고 佛, 祖의 심법(心法)을 한대 묶어 선교상자(禪敎相資), 정혜쌍수(定慧雙手), 원돈관행(圓頓觀行), 간화결의(看話決疑), 무심합도(無心合道) 내지 ‘염불삼매(念佛三昧)’의 방편문(方便門)을 열어서 각기 근거에 따라 수증(修證)케 하므로 인도(印度)의 원전적 불교와 중국의 분파적(分派) 불교(佛敎)는 마침내 전고미유(前古未有), 주선융화(主禪融敎)의 빛나는 회통불교(會通佛敎)를 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조국사의 사상적 뒷받침은 많은 선 지식(善知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특히 후세에는 무염국사(無染國師)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와같이 한국불교는 인도단 중국불교에 의한 지류(支流)나 연장(延長)이 아닌 귀일적(歸一的, 창조적(創造的)인 특수성(特殊性)을 지닌 우리 고

유의 성격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선인(先人)들의 이러한 배려로 모든 불자(佛子)들은 치선(痴禪) 광혜(狂慧)의 병적상태를 지향하고 먼저 불조(佛祖)의 여실언교(如實言敎)로써 진정한 지견(知見)을 결탁(決擇)한 다음에 그 문자와 지혜(知慧)를 놓아 버리고 바로 자심(自心)의 현전 일념(現前一念) 위에 나아가 전승(傳承)되어 온 것이 한국적(韓國的) 전통불교(傳統佛敎)로써 사집(四集) 사교과(四敎科)라는 지침서(指針書)가 그것을 증언(證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淨土三部經(원각경)은 넓게 유포되었으며, 불자필수(佛子必修)의 것이며 모든 불교수행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교과서로 서정하여 졌다. 그 후 800여년의 세월동안 불교강령이나 제가신도들 사이에 넓게 독송되고 연구되어 온 淨土三部經의 그 지보적(至寶)인 가치는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淨土三部經이란 대타라니문(大陀羅尼門)을 뜻하는 말이며 일체(一切)의 진정(眞正)한 진여(眞如) 보제(普提) 및 다라밀(波羅蜜)을 유출(流出)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제 무염국사(無染國師)가 가신지 88세가 지났으나 그가 뿌린씨앗은 다시 이땅에 단비를 만나

싹을 터서 여기 이렇게 선각종(禪覺宗)으로써 다시 피어오른다. 그리하여 선각종(禪覺宗)이라는 보배로운 종을 이루어 더욱 많은 중생의 심성을 밝혀 줄 것이다.

선각종(禪覺宗) 종지(宗旨), 간행에 즈음하여 종단 내외분들은 물론이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사회인사 제위에게 감사드리며 발전하는 한국불교의 등불이 되고자 더 한층 자승하는 바이다.

### 보성그룹



보성삼베세유(주)  
보성상(주)  
보성의전사업부

고객지원센터  
1544-6607

<http://suho-1004.co.kr>

대한불교 선각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성그룹은 선각종과 함께 하겠습니다